SK케미칼, 발기부전치료제 본격개발

SK3530 제2 임상시험 성공적으로 완료 ... 인투젠과 공동 2006년 출시

SK케미칼(대표 김창근)은 바이오벤처기업인 인투젠과 공동으로 개발한 신약 발기부전치료제 <SK3530>에 대한 제2기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4월25일 발표했다.

SK케미칼에 따르면, SK3530은 2004년 9월부터 서울대병원 등 국내 10개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제2기 임상시험에서 비아그라와 같은 용량인 100mg에서 질내침투율이 94.3%, 성교완료율이 72.4%, 환자만족도가 86.2%를 기록했으며 기존 제제와 비교할 때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동개발 책임자인 인투젠의 김대기 박사는 “SK-3530은 생체 이용률이 비아그라와 유사하면서도 발기부전 치료에 강력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더욱이 기존 발기부전치료제의 대표적 부작용인 색각장애가 제1상 임상시험에 이어 제2상 임상시험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고 두통 등의 부작용도 현저히 낮았다”고 강조했다.

SK케미칼과 인투젠은 1998년 SK-3530에 대한 개발을 착수해 2004년 영국 Covance와 제1상 임상시험을 마쳤으며 2005년 하반기에 제3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SK케미칼은 SK3530을 2006년 하반기에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04/26>